

현대판 트로이 목마...“이스라엘, ‘삐삐 폭탄’ 직접 만들었다”

유령회사 통해 폭탄물 삐삐 2022년부터 헤즈볼라에 공급 이스라엘 첨단도·감청 피해 휴대폰 자제 역으로 겨냥 공격

레바논 헤즈볼라가 통신수단으로 쓰는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 폭발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해 온데, 폭발의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이 직접 생산해 헤즈볼라에 공급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2년부터 유럽에 페이퍼 컵커피(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기회를 엿보다가 제조단계에서부터 폭발물과 기폭장치가 삽입된 '특수제품' 수천개를 헤즈볼라에 팔아치우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전현직 국방·정보 당국자 12명을 취재한 결과 이번 폭발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작전이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공군부대를 방문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전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병력과 자원, 에너지를 북쪽으



지난 18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지역에서 전날 발생한 무선호출기(삐삐) 동시다발 폭발 사건 사망자의 장례식이 문상객들의 애도 속에 열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로 돌리고 있다”며 “나는 우리가 새로운 전쟁 단계의 시작점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N 방송은 갈란트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 발언은 중동을 다시 확전 위기의 가장자리로 몰아넣은 이번 작전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암묵적

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앞서 이 방송은 레바논에서 수천 대의 호출기가 폭발하자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벌인 작전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레바논에서는 지난 17일 수도 베이루트 남쪽 교외와 동부 베카벨리 등 헤즈

볼라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삐삐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터졌다. 당시 폭발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하고 약 2천800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18일에도 레바논 동부 베이루트 외곽 다히예 등지에서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휴대폰 무전기(위키토키)가 연쇄 폭

발하며 최소 20명이 숨지고 450명 이상이 다쳤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직후부터 하마스에 대한 연대와 지원 차원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해왔다. 한편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가

자 전쟁이 발발한 이래 헤즈볼라는 조직원들에게 무선호출기 사용을 장려해왔다.

현대전화가 해킹돼 공격계획이 사전에 노출되거나 이스라엘의 표적공습에 주요 인사가 암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대전화의 카메라와 마이크는 스파이웨어를 심을 수만 있다면 원격도·감청 수단이 될 수 있다.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이스라엘 보안기업이 개입해 세계 각국에 수출한 현대전화 도감청용 스파이웨어 ‘페가수스’는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광범위하게 악용돼 국제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헤즈볼라는 올해 2월 대원들에게 현대전화를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반면 무선호출기는 카메라와 마이크 등이 없어 도·감청 위험이 적고, 전파음 영역에선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로 현대전화보다 덜한 까닭에 상당히 권장됐는데,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를 역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헤즈볼라가 납품받은 무선호출기 배터리 옆에 1-2온스(28-56g)의 폭발물과 원격기폭장치가 달려 있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美, ‘볼티모어 교량붕괴’ 선주 등에 1천억 소송

법무부, 연방법원에 청구...“소유주 등 과실·부주의로 사고 발생”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볼티모어 항구의 대형 교량 ‘프랜시스 스코트 키 브리지’에 부딪혀 교량 붕괴 및 물류·교통망 마비를 초래한 싱가포르 선박의 선주와 운영업체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사고를 일으킨 대형 컨테이너 선박 ‘달리’를 소유하고 운영한 싱가포르 법인 ‘그레이스 오션 프라이빗’과 ‘시너지 마린 프라이빗’을 상대로 메릴랜드주에 있는 연방법원에 1억달러(약 1천300억원) 이상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소송이 치명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수로를 막고 있는 난파

리를 건설하고 소유하고 유지하고 운영했으며, 주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자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4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교량 붕괴에 대해 “회사의 과실, 태만,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며, 손실이나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20일 이른 오전 볼티모어에서는 동력 통제를 잃은 달리가 교각에 충돌하면서 길이 2.6km의 프랜시스 스코트 키 브리지가 무너졌고,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6명이 숨졌다.

이 사고로 볼티모어항이 폐쇄되면서 대형 화물선의 통행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볼티모어항 운영은 11주 만에야 정상화됐다. /연합뉴스

리를 건설하고 소유하고 유지하고 운영했으며, 주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자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4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교량 붕괴에 대해 “회사의 과실, 태만,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며, 손실이나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20일 이른 오전 볼티모어에서는 동력 통제를 잃은 달리가 교각에 충돌하면서 길이 2.6km의 프랜시스 스코트 키 브리지가 무너졌고,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6명이 숨졌다.

이 사고로 볼티모어항이 폐쇄되면서 대형 화물선의 통행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볼티모어항 운영은 11주 만에야 정상화됐다. /연합뉴스

“생명체 있나” NASA, 내달 목성 탐사선 발사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다음 달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NASA 당국자들은 오는 10월10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로파 클리퍼를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에

실어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무의 목적은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적도 지름이 달의 90%인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위성으로 약 1.6km에 달하는 얼음층 아래에 염도가 있는 바다가 존재해 생명체가 서식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탐사선은 유로파에 착륙하지 않고 표층에서 25km 거리에서 비행하면서 유로파의 구성 요소, 지질과 함께 얼음층과 그 아래에 있는 바다의 성질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탐사를 하게 된다.

유로파 클리퍼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29억km를 이동해 2030년 목성 궤도에 진입, 수년에 걸쳐 유로파를 수십 차례 근접 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英총리, 부인 고급옷 선물받고 ‘늑장 신고’ 논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자선가인 노동당 상원의원에게 선물을 받고 ‘늑장 신고’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언론 등에 따르면 와히드 알리 상원의원은 지난 7월 초 총선을 전후로 총리 부인 빅토리아

여사에게 고급 의류와 수선 비용을 지원했다. 영국 하원의원은 선물을 받으면 28일 내로 의회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총리실은 지난주에야 신고를 위해 의회에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은 의회 관계당국에 스타머 총리가 왜 받아마자 신고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알리 의원은 미디어 기업을 출신으로, 노동당 주요 인사들에게 기부해왔다. 지난달 알리 의원은 노동당 정부에서 직책이 없는데도 총리 집무실 임시 보안 패스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